친애하는 괴명군 사님:

5월 19일 월요일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인국과 관련이 있는 내게의 미국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본인 입장과 오산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 엽의 희생을 본인에게 변들어 주신 우대에 사죄를 표합니다. 우리들은 이 오산을 마음의 줄줄이며 우려하여 본위기에 국히 민족 하였습니다.

이 오산에는 한국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될 미국 인사들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밤이ContentView 가장 기의한한 일이었음을니다.

또한 이곳에서 인간과 한국 국민들을 이해해주며 우리들을 보호해주신 미국 시람들을 사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산은 끝까지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친애하는 괴명군 사님과 귀 엽의 희생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1965. 6. 2.

임에있는 전투미로 장군:

5월 19일 워털루 이스트니아 호텔에서 장군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다음날 요찬을 같이 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워털루 이스트니아 호텔에서 개최된 요찬에는 한국과 관련이 있는 네 개의 미국 단체가 참석하였음으로 군론 미국질문시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찬을 계기로 한국을 위한 미국 단체의 활동이 강화될것을 희망 합니다.

5월 21일 워스프로스트로 에서 장군의 회의자 러코미스찬 군을 만나게 되었고 기쁩니다. 러코미스찬 군이 앞으로 장군과 같은 홍통한 군인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군론 귀국 방면이 매우 성공적이며 의의 있는 것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군론 방면을 계기로 공동 노력에 성원하여야 하는 우리 나아의 작극적인 공동 노력이 이루어지게 될것을 희망합니다.

장군 내외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Translation)

June 2, 1965

Dear General Van Fleet:

I was quite pleased to have a happy reunion with you at the Waldorf Astoria Hotel on May 19, and to have breakfast next day.

I thoroughly enjoyed the occasion in New York and consider it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during my state visit to your country since it was participated in by the four American organization interested in our Korea in one way or another. May the occasion serve to speed up their useful activities with or for the Korean people.

At West Point on May 21, I was glad to meet Cadet McChristian, your grand son, and wished that he will become a General Van Fleet some day.

My recent visit to your country was, I believe, very successful and rewarding. I wish that the occasion will mark a turning point in our relations and accelerate our joint efforts to positively attain our common goals.

Please accept our best wishes to you and Mrs. Van Fleet for continued good health and happiness.

Yours sincerely,

/s/ Park Chung Hee

General James A. Van Fleet,
Withlacoochee Ranch
Polk City, Florida
U.S.A.